

‘사법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법행정정보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유 덕, 하영렬

1. 연구의 배경

사법부는 1980년 ‘대법원 판례 전산화(당시 전산개발센터에서 수행)’를 시발로 사법행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전산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전산실의 규모가 작고 개발요원이 부족하여 각 부서의 전산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종합정보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작성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전산화 추진시에 직면하게 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사법부라는 독특한 환경으로 인하여 다른 분야보다 전반적인 여건이 좋지 않았고 따라서 전산화의 요구가 뒤늦은 감이 있었다.

2. 연구의 목적

사법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의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의 수립.

3. 연구의 방법

단지 6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전 부서의 현업을 조사 분석하고 전산화 요구사항을 수렴한 다음 적절한 시스템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생활과 재산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법행정의 전산화계획을 최초로 수립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그 당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하였다.

첫째,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전 직원(법원행정처)을 대상으로 전산화를 위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였으며, 조사결과를 SAS라는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전산화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계량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작업은 부수적으로 잠재적인 현업 부서의 전산화 욕구를 표출하게 되는 효과도 이끌어 냈다.

둘째, 현업조사 및 분석 단계에서 얻어진 각종업무를 'DFD(Data Flow Diagram)'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시스템의 모듈화와 업무연관성 분석을 용이하게 하였다.

셋째, 각 업무별로 작성된 DFD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대상업무별로 시스템 개발을 위한 'Structure Chart'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시스템의 설계

사법행정 정보시스템을 크게 다섯개의 단위업무시스템으로 구분하고 각 단위업무별로 시스템의 개요, 시스템의 구성, 예상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단계별 개발계획을 제시하였다. 다섯개의 단위 업무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1) 사무지원시스템 : 문서관리, 법규검색
- (2) 일반행정시스템 : 인사관리, 예산/회계관리, 물품관리, 국유재산관리
- (3) 재판업무시스템 : 민사소송, 형사소송, 기타 소송
- (4) 법정사무시스템 :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5) 재판정보시스템 : 통계정보, 도서정보, 판례정보

5. 개발 우선순위의 결정

거의 백지상태에서 일단 개략적인 단위시스템의 모형이 제시되자 담당 부서별로 해당업무가 중요하니 개발 우선순위를 높여 달라는 청탁(?)이 빈번하게 들어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컴퓨터와 거의 관련이 없던 사람들로부터 전산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뿌듯한 보람과 기쁨을 아울러 느끼기도 했다.

개발우선순위는 여러 가지 자원배분의 평가방법을 고려한 다음, 비교적인 비용·효과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사법행정정보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단위시스템에 대한 자원배분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현업부서의 개선요구도, 기술적가능성, 프로젝트 성공도 등을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6. 정보시스템의 개발전략

끝으로 거대한 사법행정정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전략과 단계별 개발계획 등을 제시하였으며, 개발전략의 요소로서 전산조직의 확충, 하드웨어의 도입계획 등도 마련하였다.

또한 장기 개발계획을 실천하는 데에 컴퓨터 관련 기술발달의 추세를 반영하였는데, 주요한 것으로는 방대한 부동산 등기업무의 처리에 광 디스크의 활용을 건의하였고, 그밖에 LAN의 설치, OA와 데이터베이스의 분산처리개념 등을 포함시킨 것 등이 있다.

7. 덧붙이는 말

대한민국의 사법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독특한 분위기, 즉 중압감이 느껴지는 건물과 근엄한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 대법원 건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일이 결코 쉬운 일

은 아니었지만,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자신감과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법원행정처로부터 연구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이라는 평가를 얻기도 하였다.